

2017. 11.

2017년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목포시의회

● 목 차 ●

I. 연수개요 및 주요일정	1
II. 방문국 기본현황	3
III. 주요방문지 연수내용	9
IV. 연수를 마치며	25

연수 개요 및 주요 일정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7. 10. 16.(월) ~ 10. 22.(일) / 5박 7일
- 연수목적
 - 말레이시아 부킷빈땅 스트리트 먹자골목 견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남행열차 포차에 접목 할 우수사례 수집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 사업과 관련
 - 기존 입지규제를 받지 않고 대상사업을 추진한 모델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견학하고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 연수장소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연수참여 : 8명 (시의원 5, 의회사무국 직원 3)

소 속	직 위(급)	성 명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조 요 한
	시 의 원	장 복 성
	"	이 재 용
	"	고 승 남
	"	최 석 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조 선 아
	6 급	한 대 희
	7 급	권 미 경

□ 주요일정

일 자	행선지	시간	주 요 일 정	비고
10.16.(월) 1일차	인 천	06:30	o 목포 출발 → 인천공항	
	말레이시아	21:35	o 인천공항(16:35)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착	
10.17.(화) 2일차	말레이시아	전일	o 쿠알라룸푸르 시청 방문	
			o 메르데카 광장, 부킷빈땅 견학	
			o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KLCC 공원 등	
			o 호텔 이동 및 투숙	
10.18.(수) 3일차	말레이시아	전일	o 쿠알라룸푸르 → 말라카 이동	
			o 네덜란드 광장, 스타다이스 거리	
			o 세인트 폴 교회, 산티아고요새, 차이나타운	
			o 호텔 투숙	
10.19.(목) 4일차	말레이시아	전일	o 조호바루 견학	
			o 말라카 → 싱가포르 이동(2시간 30분)	
			o 호텔이동 및 투숙	
10.20.(금) 5일차	싱가포르	전일	o 싱가포르 시청 산하 기관 방문	
			o 보타닉 가든, 리버사파리, 오차드로드 견학	
			o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견학	
			o 호텔 투숙	
10.21.(토) 6일차	싱가포르	전일	o 센토사 섬, 쥬얼박스 견학	
			o 머라이언 타워 견학	
			o 싱가포르 공항 → 인천공항(6시간)	
10.22.(일) 7일차	인 천	05:55	o 인천공항 도착	
		12:50	o 인천공항 → 목포 이동	

방 문 국 기 본 현 황

1. 말레이시아

□ 역사와 환경

1) 지리적 위치

말레이시아는 인도양과 남지나해 사이에 위치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인 동 말레이시아(East Malaysia)로 이루어져 있음

말레이 반도는 태국과, 동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브루나이와 접해 있으며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3.3배 규모인 329,758km² 이며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행정수도는 푸트라자야임.

2) 역 사

5~6세기 무렵 힌두교와 불교문화가 유입되어 말레이시아 북서부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14세기 무렵에는 현재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종교로 성장한 이슬람교가 아랍 상인에 의해 전해짐

16세기 포르투갈의 침공 이후 네덜란드의 말라카 점령을 거쳐 18세기 영국이 페낭을 점령하면서 말레이시아는 20세기 초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은 한편, 보르네오섬 사라왁주는 1888년 북 보루네오(현재 사바 주)와 함께 영국 보호령이 되었음

1957년 8월 31일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한 말레이시아는, 1963년 동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을 이룸. 말레이시아

연방은 1965년 분리 독립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헌법상 국가원수(국왕)는 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을 뺀 9개 주의 통치자[Sultan] 중에서 선출되고 말레이시아 국왕은 5년 임기 동안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리와 국가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통솔권 등을 갖고 있음

3) 정 치

말레이시아는 연방제 국가이며, 선거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나라임.

현재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는 웨스트민스터 체제와 유사한데, 이는 영국 식민지의 유산임. 왕의 임기는 5년이며, 피낭, 므라카, 사바, 사라왁을 제외한 9개 각 주의 술탄(Sultan) 중에서 교대로 선출됨.

<입 법 부>

의회는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나누어 있는 양원제로 상원(원로원)과 하원(대의원)이 존재한다. 국회의원은 최대 5년 임기를 갖는다. 국회는 다당제를 기초로 하며, 소선거구제 형태로 선출한다.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한 직후 여러 개의 정당이 연합해 만든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이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행 정 부>

행정부는 내각으로 구성되며, 총리가 주도한다. 총리는 대의원 의원이어야 하며, 국왕을 조언하고 의회 다수당을 지도한다.

내각 의원들은 원로원 의원과 대의원 의원 양측에서 선택될 수 있으며 총리는 내각의 수장이자 정부의 수장이다.

<사 법 부>

최고 법원은 연방 법원이며, 그 밑으로는 상소 법원과 대법원(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양측에 각각 하나 씩 존재)이 있다. 또한 왕실에 반하는 행위를 처리하는 특별 법원이 있다.

사형제는 살인, 테러, 마약밀매 등 중범죄자들을 처리하는 데 적용되며 시민법원과 같지만 다른 샤리아 법원이 존재한다.

□ 인적구성과 종교

1) 인구와 인종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약 2,884만여 명이며,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이 말레이 반도에 살고 있다. 인구의 약 50퍼센트가 말레이인이며, 중국계가 약 25퍼센트, 인도계가 약 8퍼센트, 각 부족의 전통문화를 지키며 사는 원주민들이 10퍼센트 정도다. 이밖에도 중국인과 말레이인의 혼혈 인종인 프라나칸인과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계 인종들이 살고 있다.

2) 종 교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정도가 무슬림 이다. 무슬림 중 대부분은 말레이계며, 인도계 이슬람교도와 이슬람으로 개종한 일부 중국인도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아라비아의 정통 이슬람 국가와 달리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그중 중국계가 주류를 이루는 불교 신자가 약 19퍼센트, 인도계가 주류를 이루는 힌두교 신자가 약 6퍼센트다. 대부분 동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기독교 신자도 9퍼센트 정도 된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말레이시아 문화의 중요한 배경이다.

2. 싱가포르

□ 역사와 환경

1) 지리적 위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도시 국가이다. 북쪽의 조호르 해협과 남쪽의 싱가포르 해협을 두고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분리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은 조호-싱가포르 코즈웨이를 통해, 서쪽은 투아스 제2연결점에 연결되어 있다. 주룽섬, 플라 테콩, 플라 우빈, 센토사가 주요 섬이며, 가장 높은 산은 부킷 티마 힐로 해발 166미터 이고, 계속적인 간척사업으로 1960년대에는 581.5km²의 면적에서 현재는 697.2km²로 확장되었고 2030년까지 100km²를 더 확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작은 섬이 본섬과 연결되었다.

2) 역 사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탄과 계약을 맺고, 싱가포르를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영국의 인도 정부가 1858년부터 이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1867년부터는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의 다툼 끝에 결국 연방 탈퇴권유를 받고 탈퇴하여 자주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국가로써 싱가포르의 당면한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러나 1959년부터 1990년까지 리완유 수상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홍콩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관 주도의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은 공산주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에 고촉통이 수상직을 승계하였으며, 2004년에는 리완유 전 수상(현재 국가자문)의 큰아들인 리셴룽이 3대 수상으로 집권하고 있다.

3) 정 치

싱가포르는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으로 대통령 직선제하의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는 단원제이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1991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했으며 의회 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복수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적 투표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고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한다.

<입 법 부>

싱가포르의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21세 이상 유권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기 5년의 국회의원(현 84석), 무선거구 의원(1석),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 6개월의 지명 국회의원(9석) 등 총 94명으로 구성된다. 입법부의 기능은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 및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며, 특징은 장관(Minister),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y) 등으로 임명된 국회의원 이외의 의원은 일반 직업의 경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직위를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backbencher)에게는 수당만 지급한다.

<행 정 부>

싱가포르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행정부의 구성원인 총리와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 국회 의원 가운데 임명하며, 총리는 정치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해 최고의 권한을 행사한다. 내각은 총리실과 14개부로 구성되며 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2010년 6월 싱가포르의 총리는 2004년 8월 12일에 취임한 리셴룽(Lee Hsien Loong, 李顯龍)이다. 총리실의 기능은 각 부처의 활동과 정부 일반 정책에 대한 조정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채용과 임용·보수·교육 훈련 등 공무원 관련 업무와 국기와 국가, 선거 관련 업무도 총리실 관할이다.

<사 법 부>

싱가포르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고등 법원과 항소법원이며, 하급법원은 지방법원·치안법원·소년법원·검시법원 (Coroners' Court) ·소액청구사건법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타 대법원 판사는 총리가 대법원장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인적구성과 종교

1) 인구와 인종

2010년 말 기준, 508만 싱가포르 인구 중 377만명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고 131만명이 외국인이다.

싱가포르의 인구는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로 구성된다. 이외에 유럽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유라시안계도 일부 있다.

2) 종교 : 불교(3%), 기독교(18%), 이슬람교(14%), 도교(10%), 힌두교(5%)

주요 방문지 연수내용

1. 쿠알라룸푸르 시청 방문 (말레이시아)

□ 푸트라자야시 도시개발 사례 청취

※ 푸트라자야시

1957년 11개 주가 통합한 말라야 연방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정하고, 헌법 154조에 ‘의회가 다른 곳을 정할 때까지 쿠알라룸푸르가 연방의 수도다’라고 명시했다.

1991년 들어 마하티르 수상은 ‘비전 2020’이라는 국가발전 30년 계획을 추진하며 입법부는 남겨 놓고 행정,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할 신행정수도로의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전자정부 구현 등이 목적이었다.

1995년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 짓고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쿠알라룸푸르를 말레이시아의 경제와 금융 수도로써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착수하게 되었음.

1999년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곳이 바로 푸트라자야이다.

말레이시아의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이며 최초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알려진 푸트라자야는 21세기 말레이시아인들의 이상형의 도시가 되기 위해 현재도 건설 중인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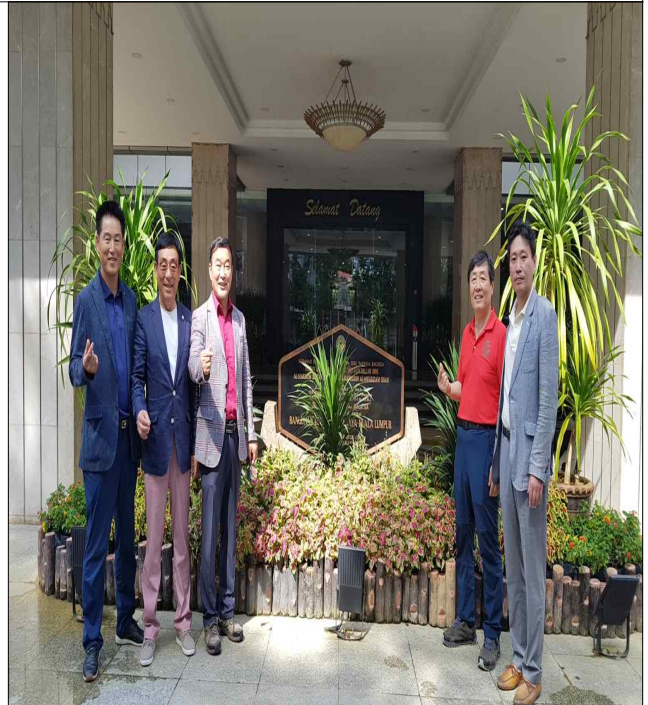
< 위치 및 면적 >

- 말레이시아의 첨단산업단지로 유명한 멀티미디어슈퍼코리더(MSC)의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원래 셀랑고르(Selangor)주에 속하였으나 1995년 10월 연방정부가 셀랑고르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푸트라자야시를 설립하였고, 2001년 2월 포화상태에 달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대신하여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 삼기 위하여 연방직할령으로 지정하였다. 세 번째 연방직할령이다.
- 면적은 약 1,386만평으로 계획인구는 33만명 도시개발의 주체는 푸트라자야 홀딩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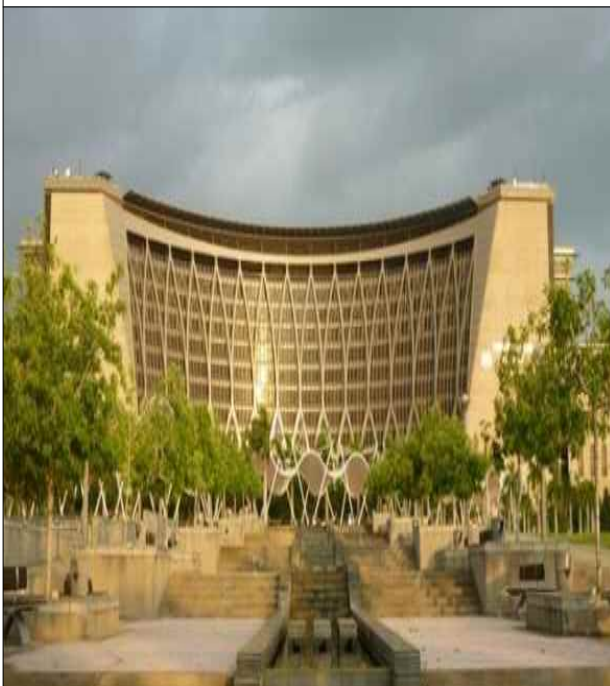
< 개발배경 >

- 행정중심도시(Administrative Center)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는 사이버자야와 함께 수도인 콰라룸푸르와 콰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사이에 있는 5km×50km의 녹지대에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대회랑지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정부청사 사무실의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행정센터의 구축을 위해 시작됨

쿠알라룸푸르 시청 방문



푸트라자야시 관공서 건물 사진



쿠알라룸푸르시 개발 모형도



※ 쿠알라룸푸르시 전체 개발 모형도를 대형룸에 설치하여 벽면에 연혁과 향후발전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하고, 모형도내의 조명을 통해 발전하는 쿠알라룸푸르 발전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2. 말라카 방문 (말레이시아)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도시

※ 말라카

말레이반도의 남서부, 말라카해협에 면한다. 말라카주(州)의 주도(州都)로 말라카강(江) 어귀에 있으며 강의 좌안에 세인트폴 언덕이 솟아 있다. 말라카해협 해상교통상 요충이며, 동남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원래는 한촌에 불과하였으나 14세기에 수마트라섬에서 온 파라메스바라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슬람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창하였다. 1511년 아시아에 진출한 포르투갈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로 만들어 향료 무역의 독점과 그리스도교의 선교 기지로 삼았다. 그 후 1641년 네덜란드가 빼앗아 해협을 지배하였고, 1824년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이러한 각국의 쟁탈사는 결과적으로 말라카에 많은 사적을 남겼는데, 세인트폴 언덕의 유적을 비롯하여 세인트존 언덕의 성채가 그것이며, 이밖에 박물관도 있다.

< 말라카 세계문화유산 등재 배경 >

- 과거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항으로서 관련 역사 및 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말라카 해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역사 중심 도시로, 영국과 유럽에서 중동, 인도 대륙과 말레이 군도를 경유하여 중국에 이르는 무역로에서 생긴 다양하고 생생한 문화유산을 간직
- 아시아의 살아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에 대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만나 공존하는 곳으로 말레이 군도, 인도, 그리고 중국의 문화 요소와 유럽풍 요소가 모두 반영되어 독특한 건축과 문화, 도시 경관이 만들어져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간직함.

세인트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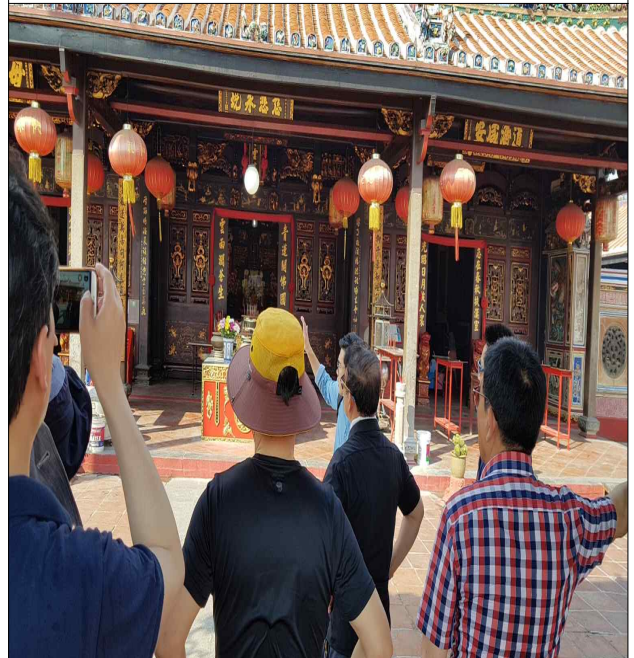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예전
유해 안치장소**



산티아고 요새



청훈텅 사원



※ 청훈텅 사원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식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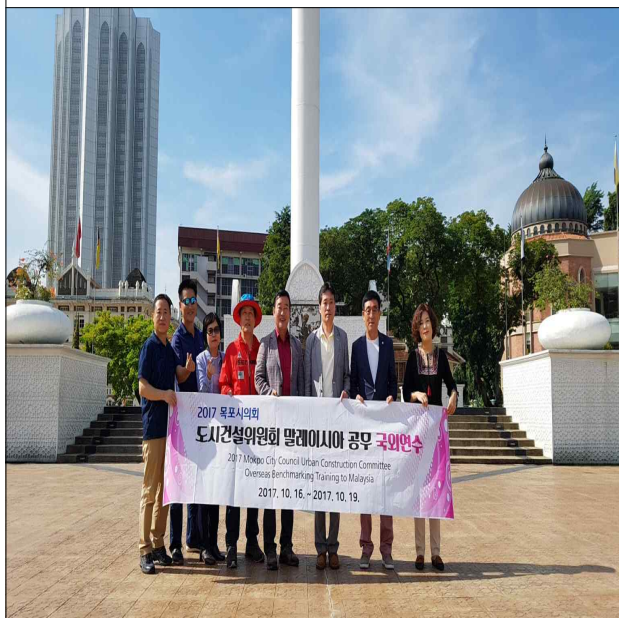
3. 메르데카 광장,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부킷빈땅 (말레이시아)

□ 메르데카 광장

메르데카 광장은 1957년 8월, 영국 국기를 철거하고 말레이시아 국기를 게양하면서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이며, 약 2만4천평의 넓은 잔디광장으로 한쪽에 분수대가 있는 정원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 게양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것은 높이 10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최근 북한에서 100m이상의 국기 게양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모퉁이에는 1897년에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분수도 있다. 메르데카 광장 주변으로 구시청 건물과 국립 역사 박물관,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이 자리하고 있다.

메 르 데 카 광 장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쿠알라룸푸르 중심에 있는 경마장 부지였던 곳을 쿠알라룸푸르 센터로 개발한 것이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이곳 센터에 있는 18개의 빌딩 중 최고층 빌딩이다. 1992년 공사를 시작해 1999년 8월 개관하였고 88층의 쌍둥이 빌딩이다. 말레이시아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2020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이다.

연면적 6만 5728평에 지하 6층, 지상 88층, 전체높이 452m로 1974년 완공된 미국 시카고의 윌리스타워(Willis Tower)보다 10m가 높다. 소유주는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와 쿠알라룸푸르 시티센터(KLCC)로, 타워 이름 역시 이 석유회사 이름에서 딴 것이다. 지상 175m 높이의 41층과 42 층에 걸쳐 두 빌딩 사이를 스카й브리지로 연결해 양쪽 건물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였다. 또 88층부터 4개 층이 하나의 층을 이루는 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층까지 합하면 92층이 된다. 외형은 언뜻 보면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했을 뿐이다. 지상부터 6층까지는 쿠알라룸푸르 최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한쪽에 페트로나스 본사가 있다. 한국의 삼성건설(주)과 극동건설(주) 컨소시엄이 한쪽 타워를 시공하였고, 다른 한쪽은 일본 회사가 시공하였다. 한국 컨소시엄은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 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6일을 앞섰다.

페 트 로 나 스 트 윈 타 워



□ 부킷빈땅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로 KL모노레일이 지나고 있어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다. 호텔, 크고 작은 쇼핑센터, 극장, 노천 카페, 노점상이 밀집해 늘 인파로 북적인다. ‘쇼핑과 식도락의 메카’일 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는 문화 공간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표 브랜드인 로열 생랑고르를 비롯해 빅토리아 시크릿, 조 말론, TWG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또한 마담 퀴스, 그랜드마마스, 딘타이핑 등 관광객에게 유명한 맛 집도 많다.

역 주변에는 노천 시장과 맛집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잘란 알로 거리 양쪽으로 맛집이 늘어선 ‘잘란 알로 푸드 스트리트’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는 유명한 먹자골목이다.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며, 도로에 늘어선 테이블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로컬음식을 즐길 수 있다. 우리시도 원도심의 차없는 거리에 문화행사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데 접목 할 수 있음.

부킷빈땅 먹자골목



4. 구) 싱가포르 시청 방문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Singapore)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넓고, 싱가포르 및 아시아의 현대 미술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관의 크기와 소장품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이곳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시청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누구나 살면서 찾고 싶지 않는 곳인 대법원이 누구나 찾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것.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며 싱가포르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옛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는 인상적인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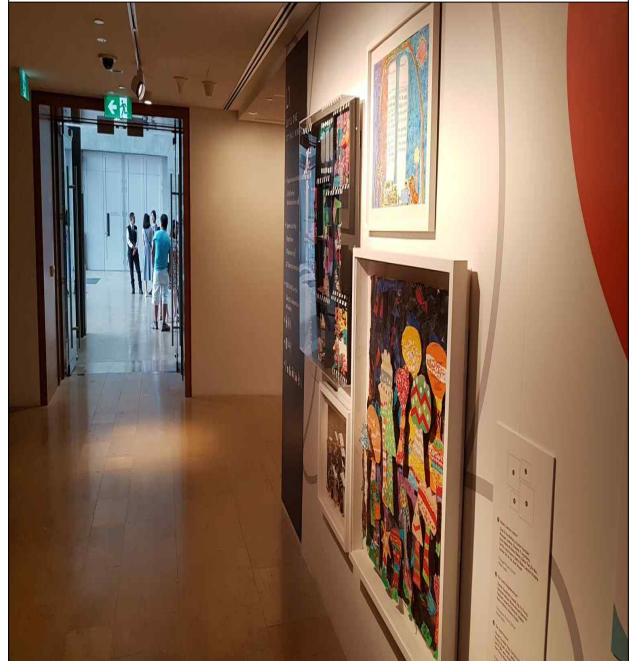
구) 싱가포르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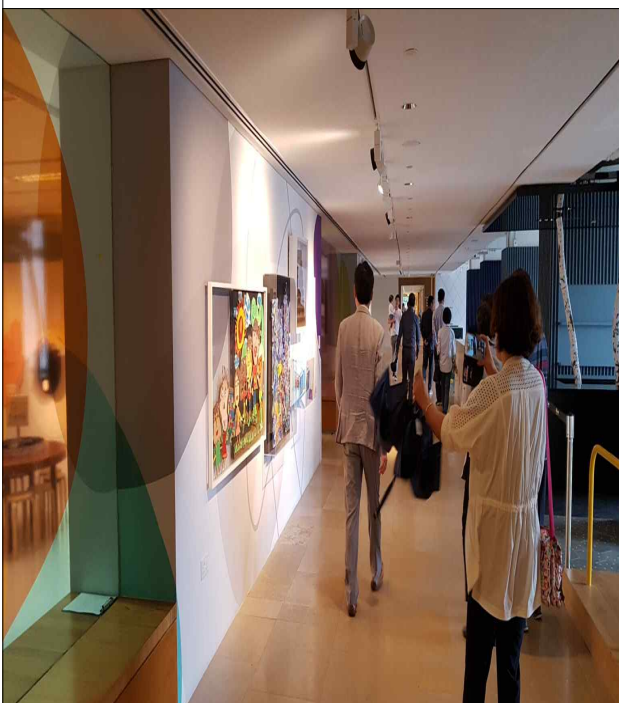
**미술관내에 옛 대법원시절
쓰던 가구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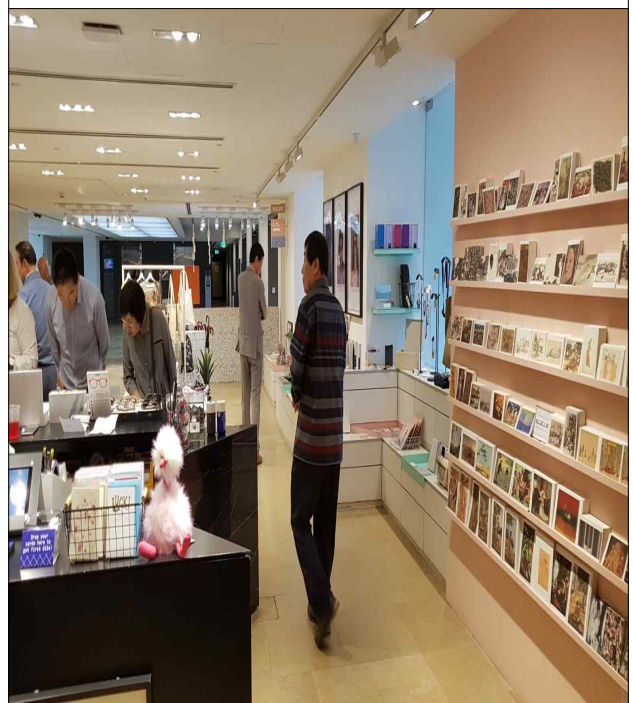
벽면에 미술품 배치



벽면에 미술품 배치



각종 미술관련 기념품 판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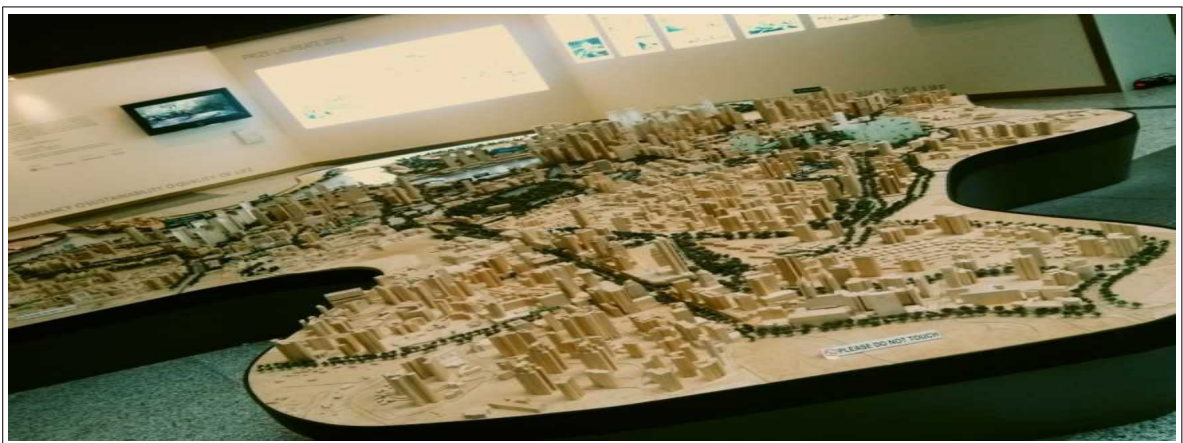


5.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40년 전의 가난하고 조건이 열악한 상황의 작은 섬나라에서 오늘날의 친환경적 국제 비즈니스 도시국가로 발전한 싱가포르는 국토면적이 매우 적고, 일부지역은 군사시설로 이용되는 세계의 작은 국가들 중 손꼽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형적 환경을 가진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공사는 국토의 사용계획을 미래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우는 필수불가결의 국가기관이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이 위치한 Tampines, Simei와 Changi 지역은 12층 이상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등 건물고도 등을 제한하기도 하고 연못부터, 도로 주변, 공장 지대, 기차역, 버스 정거장, 산업 단지, 가스 시설 등 여러 시설에 관여하여 계획을 세우며 좁은 국토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간척 사업을 통해 면적을 늘리기도 한다.

- 싱가포르의 도시계획은 1971년부터 시작된 10년 단위의 컨셉플랜과 5년마다 이루어지는 마스터플랜이 기본이 된다.
- 토지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0~50년 후의 경제상황과 인구, 수송 문제 등을 고려해 10년 단위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세워진 계획과 실제 개발을 점검한다.
- URA가 입주한 건물에는 시티갤러리를 설치하여 누구나 싱가포르 도심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을 전시하고 있으며 장래 개발계획도 포함하여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



6. 오차드 로드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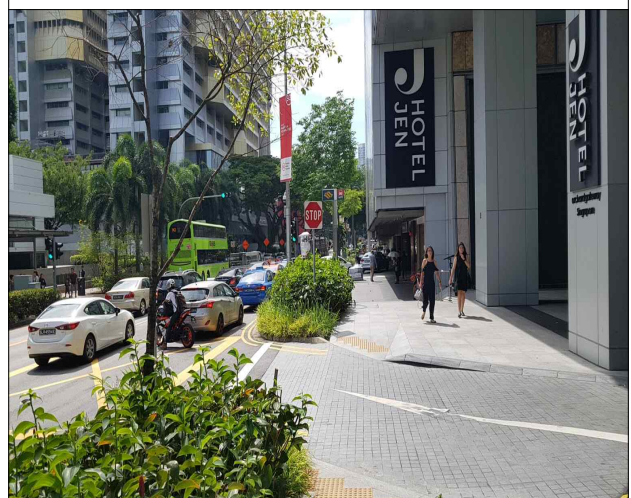
오차드 로드는 싱가포르 최고의 쇼핑 거리로 세계 최대 쇼핑몰 밀집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오차드 퍼레이드 호텔부터 플라자 싱가포르까지 약 3km에 달하는 도로 양쪽에 크고 작은 쇼핑몰 수십여 개가 들어서 있다.

지금은 MRT 도비콧역부터 오차드역을 지나 서머셋역에 이르는 변화가 있지만 19세기 전까지 오차드 로드는 과일, 후추, 넛맥(육두구) 등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던 지역이었다. 오차드(Orchard)라는 이름도 '과수원'을 뜻한다.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 정책에 의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롭게 상업지구로 개발되면서 쇼핑몰과 호텔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후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으로 부상했다.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탄력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협이전자리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접목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오차드로드 대형 쇼핑몰 앞



오차드 로드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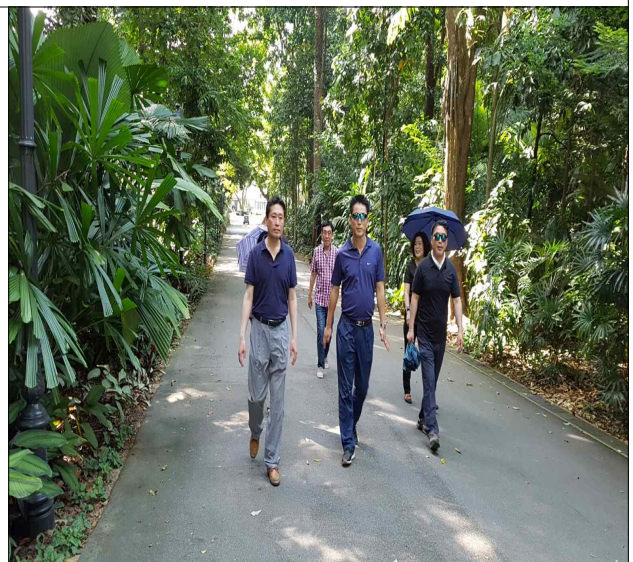
7. 보타닉 가든, 가든스 바이더 베이, 센토사 섬 (싱가포르)

□ 보타닉 가든

싱가포르 식물원은 1822년 설립된 싱가포르 최초의 식물원이다. 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식물 연구와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이 주가 되었다. 1829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가 1859년 지금의 자리에 다시 문을 열었다. 국립공원위원회(National Park Board)가 관리하고 있음

약 3,000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식물표본관에는 1만 5,000종의 표본이 있다. 난초과와 야자나무과 식물, 대나무류가 많다. 식물원에 상주하는 학자들이 식물 원에 관련 연구와 함께 다양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열대림, 양치류, 장미, 난초류가 자라고 있는 정원과 3개의 호수가 있음.

보 타 닉 가 든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공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2012년 6월 문을 연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는 그린시티를 추구하는 싱가포르의 열정이 빚어낸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시설을 둘러보면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먼저 출입구부터 모습을 보인 '슈퍼트리(Super Tree)'였다. 이는 흡사 영화 아바타에서 본 나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이 조형물은 커다란 기둥에 조명을 설치하고 곳곳에 화초로 장식을 하였으며 상부에는 잔가지마다 조명을 설치해 놓아 저녁에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고 한다. 또한 대형 실내 온실인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와 '플라워 돔(Flower Dome)'은 마치 잠자리의 눈을 연상시키는데, 여기에는 최첨단 환경기반시설 갖춰져 있어 멸종위기의 식물들까지도 보존이 된다고 한다. 우리 목포시에도 이렇게 조경이 훌륭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 센토사 섬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으며, 크기는 동서길이가 4km, 남북길이 1.6km인 섬임.

지명은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며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 기지였다가 싱가포르 정부에서 관광단지로 조성하였다.

센토사 섬은 종합 테마파크로 조성된 가족형 휴양지로 박물관, 놀이기구, 해양수족관, 해변, 리조트, 분수대 등 휴양과 놀이가 모두 가능하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갈 수 있는 곳으로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센토사섬은 우리시에 내년에 준공되는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고하도를 내려다보는 듯한 풍경을 연상시킴.

정부의 주도 아래 테마파크 형식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로 오늘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우리시도 고하도를 센토사 섬처럼 체류형 관광시설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멀라이어상을 배경으로



센토사섬을 연결하는 트램 안에서



연 수 를 마 치 며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유럽열강에 의한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거쳐 여러 인종, 종교, 언어를 공용하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로써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룩한 고도화된 경제발전을 이룩한 근현대사를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환경, 경제성장, 사회통합 등의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방문국 서로에게 경험과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을 공유할 만한 나라였다.

- 말레이시아의 커피숍에서 외국인인 우리에게 커피잔에 손글씨로 직접 써 전해준 “**Welcom to Malaysia**” 는 우리나라보다 뒤쳐진 말레이시아의 부정적 이미지를 뒤엎는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부킷 빈땅의 거리는 우리시도 원도심의 차없는 거리에 청소년이 찾을 수 있는 문화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싱가포르는 서울과 면적이 비슷한 도시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안에 드는 세계무역의 중심지,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써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진, 가장 모범적인 국가모델이자 경제적인 우등생으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동·서양이 조화를 이룬 사회,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잘 꾸며진 하나의 정원 같은 도시였다. 또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선

“오차드 로드”는 무조건적인 개발 규제보다는 탄력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시에서 북항 수협이전 자리에 추진하고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와 관련하여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우수한 사례를 제공하였다.

- 특히 싱가포르의 자연여건을 극복한 사례를 마리나베이에 위치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식물원 견학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감했다. 3천개가 넘는 유리 패널로 만들어진 거대한 투명 돔 속에서 동남아의 온갖 다양한 열대식물들이 자라고, 대형 인공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져 실내 정원인데도 덥지 않고 쾌적하게 느껴졌다. 이는 친환경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돔을 통해 들어오는 물줄기를 냉각수로 처리하여 돔 속의 온도가 조절되고 있다고 한다. 연중 무더운 나라에서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웅장한 실내정원을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것을 보면서 다시금 싱가포르의 저력이 놀라웠다.

- 이번 국외 연수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개국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싱가포르 1위와 2위의 택시회사 차종이 현대차 소나타와 i40이며, 말레이시아 도로를 다니면서 자주 보이는 우리 기업 홍보판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말레이시아는 경우는 도심 곳곳에 심어진 대규모의 팜나무와 어우러진 도시 발전 전략은 자연환경과 국가 주도의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싱가포르의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뛰어넘는 도시 계획 및 현대적 건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실제 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5박 7일 일정의 뜻 깊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연수를 마쳤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에 참가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모두가 방문국에서 느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한 마인드로 앞으로 시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목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외연수를 안전하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방문기관 관계자 및 현지 가이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